

종교교육학연구 제20권, pp.73~9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6

유교의례와 생명윤리

이 희 재
(광주대학교)

《요약》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구적 환경위기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생명윤리의 논쟁에 대해 유교의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의 입장은 무엇인가?

임신중절이나 안락사 혹은 자살은 천명(天命)을 거스리는 행위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이다. 뇌사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교의 상례(喪禮)에 의하면 인간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생명과 마찬가지로 시신 또한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장기이식은 살신성인의 인의 실천으로 해석될 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체를 소중히 하는 차원에서는 천명에 대한 위배이며 개인의 신체를 조상과는 무관한 실존적 개인주의의 산물로 본다. 생명복제의 경우는 수정란, 배아, 태아를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배아와 인간을 동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복제로 이어질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으로 또한 혼례의 정신과 가정의 존엄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고, 인간과 동물의 차별을 없애버림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교의 사상이나 의례에 나타난 바로는 낙태, 안락사, 뇌사, 자살, 혹은 생명복제의 쟁점들은 천리에 부응하기 보다는 인육의 차원에 쏠림으로써 개별적 생명을 연장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보편적 생명의 신성함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치병 치료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주제어: 상례, 혼례, 체백존중, 혼백관, 뇌사, 장기이식, 생명복제, 회생

I. 서론

세계는 점점 지구촌으로 좁혀지고 있고, 특정한 한 문화권에 국한되거나 특정 종교의 가치가 아닌 지구적 보편적 윤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유교

적 의례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발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지만, 본 연구의 목표는 유교의 호교적 변론에 있지 않고, 오늘날 인류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생명윤리의 문제들에 있어서 유교의 근본정신이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는 대전제하에 그러한 근거를 경전 속에서 찾고, 그 생명의 규정이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생명체에도 적용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유교의례에서 나타난 생명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지구윤리적 보편가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생명윤리(Bioethics)는 1970년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암 연구가인 포터(Van Rensselaer Potter)가 최초로 사용하였는데, 그는 인류의 생존을 포함함 지구환경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한 생명 일반에 관계되는 윤리학적 문제 설정에서 출발했다.¹⁾ 현재는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문제로 한정된 느낌을 주지만, 애초에는 ‘지구환경윤리’의 일종으로서의 생명윤리를 다루었던 것이다. 포터가 사용했던 생명윤리는 지구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과학의 의미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물질과 재화의 가치를 높이 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소외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른 결과 풍요로운 물질 속에 비인간현상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으며, 공동체의식이 파괴되고 삶의 질에 있어서 오히려 퇴보하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병리현상들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의 치유법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대안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진 것은 전통 속에 깃들여 있는 인간존중의 문화다. 현대문명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선과 악을 둘로 분리시킨 이분법적 논리가 만연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²⁾적 사고방식의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발달에 비해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 현대과학문명의 윤리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인간생명에 관한 문제는 여러 영역에서의 깊은 성찰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통윤리관인 유교와 유교의례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들어내는 것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는, 유교를 과거의 낡은 가치체계나 봉건적 질서 유지와 고정되고 동일하게 봄으로써 유교윤리를 통한 대안제시의 연구가 활발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04-002-A00036)

1) 강순근, <생명윤리학의 성립과 그 역사적 배경>, 《대동철학》 15집, 2001, 135쪽. 참조.

2) 하늘과 사람의 관계는 우선 사람의 성실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의性を 다할 수 있으면 능히 物의性을 다할 수 있을 것이요, 物의性を 다할 수 있으면 天地의化育을 도울 수 있을 것이요, 天地의化育을 도울 수 있으면 天地와 함께 병립한다’(《중용》) 사람이 천지와 그 좋은 뜻에 하늘과 사람이 합일한다는 의미다.

하지는 못했다.³⁾

유교의 생명윤리를 다룬 것은 최근의 성과이며 그동안 한국인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전통윤리 특히 유교윤리는 유교적 의례와 절차 속에 잘 담보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해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의 의의가 간과되고 무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새로운 시대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기층문화인 유교의 가치관을 통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에토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II. 유교와 유교의례

유교는 인(仁)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국가통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원리는 인간사회에서 봉건적 종법(宗法)질서의 원리로 응용되는데 이때 천(天)을 대변하는 자가 중국의 황제가 되고, 황제는 그의 권력의 근원으로서의 천(天)에 의례를 거행하며, 제후국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의례를 거행하고 그리고 서민들은 그들의 조상에 의례를 거행하는 일대 예치(禮治)의 시스템을 확립하게 된다. 그리고 공자도 또한 인간공자가 아닌 예법질서의 중심에 있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문묘(文廟)에서 숭앙 받는 제사의 대상으로 격상하였다. 공자는 황제도 경배해야 하는 존재로 신격화된 것이다. 이것은 공자의 본뜻과는 무관하게 유교는 여러 가지 의례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

3)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998년에 정병석은 〈우주 대가정의 생태론적 사유와 천인합일의 생명윤리〉, 《유교사상연구》 10집, 한국유교학회. 김세인의 〈의료 기술의 발달과 유학의 역할〉, 《유학연구》 6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0년에 김교빈의 〈양명학과 생명사상〉, 《동양철학》, 13집, 한국동양철학회. 박신환은 〈‘주역’의 생생불식 사상〉, 《생명과학과 철학하기》, 철학과 현실사. 2001년에는 최재목의 〈인간복제에 대한 유교적 입장〉,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궁리. 최일범의 〈생명공학시대에서 본 남명사상〉, 《생명공학시대의 철학적 성찰》, 14회 한국철학자대회보. 한예원의 〈양명학의 만물일체관에서 본 ‘생명윤리’〉, 《양명학》 6호, 한국양명학회. 2003년도에 김병환의 〈유가는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가〉, 《오늘의 동양사상》 9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생명공학과 인간복제: 유학의 응답〉, 《중국학보》 47집, 한국중국학회. 〈환경윤리에 대한 동양철학적 접근: 유가철학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29집. 범한철학회.을 다루고 있다.

는 이데올로기로 그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다.

유교에 있어서 의례는 사실 유교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다. 의례의 근원이 되는 ‘마땅함(宜)’이란 바로 유교의 근본 원리인 천리(天理)에 근거하는 것이며, 의례의 형식이 되는 절(節)은 이 천리를 인간 몸의 형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⁴⁾ 또한 의례는 개인이 혼자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의 정신을 유지하고 회복하기도 하였다.⁵⁾ 공동체의 공유인 만큼, 의례의 형식과 절차는 공동체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우리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수행된 유교의례 속에는 바로 공동체의 성원들이 추구했던 삶의 원리가 배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1. 국가의례

유교의례의 전통적인 분류체제로 제사 대상을 크게 천(天)·지(地)·인(人)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고의 존재는 천(天)으로 중국의 황제만이 천단(天壇)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릴 수 있었다. 물론 일반인도 하늘과 별을 비롯하여 하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 바람, 구름, 비 등을 천신(天神)으로 하여 숭앙할 수 있지만, 종법적 질서 하에서는 황제만이 천(天)에 대한 공식적 의례를 거행할 수 있었다. 제후국의 국왕은 땅과 산천 등을 지지(地祇)로 하여 의례를 거행하고 일반인은 자신의 조상들인 인귀(人鬼)를 의례의 대상으로 했다.

조선 왕조때의 우리나라의 유교적 국가의례는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제사직의(祭社稷儀), 선왕의 신위를 모시는 향종묘의(享宗廟儀)가 중심에 있었고, 그밖에 풍운뢰우와 산천 및 성황을 모시는 사풍운뢰우(祀風雲雷雨), 성황의(城隍儀), 사영성의(祀靈星儀), 제악해독의(祭岳海瀆儀), 향선농의(享先農儀), 향선잠의(享先蠶儀)등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유교의례로는 문선왕(文宣王) 공자를 모시는 석전의(釋奠儀)를 들 수 있다. 서울에는 성균관이라고 하고 지방은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의례는 공자 이하 십철(十哲) 72현(賢)을 모신 대성전(大成殿)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향사(享祀)기능과 유생에 대한 교육기능을 가진 향교는 지방관학의 중심기관으로 인재를 육성했다. 향교는 조선 성종 17년(1488)까지는 전국에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4)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예문서원, 205쪽. 참조.

5) 이은선, 〈유교적 몸의 修行과 페미니즘〉, 《유교와 페미니즘》, 한국유교학회. 서울: 철학과 현실, 127쪽.

‘문묘(文廟)’라고 하는 제사영역을 갖추고 있는 이 공간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향교 앞을 행차할 경우에는 말에서 내려야하며, 감사가 군, 현을 순방할 때 혹은 수령이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문묘참배를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관은 석전제 때에 초헌관으로 참례했다. 향교에서는 춘추의 석전과 삭망분향의 향사(享祀)를 통한 교화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유가적 규범을 보급했던 중요한 의례였으며, 지금도 석전은 수행되고 있으나 국가적 의례라고는 볼 수 없다. .

문묘에 향사되는 공자 이하의 위차(位次)는 고려조의 국자감과 향학에서 시행되는 것을 이었다. 대성전의 정위(正位)에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을 봉안하고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등 사성(四聖)을 배향하였으며 10월과 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등 제현을 종향하였고, 동.서무에는 70자를 비롯한 역대 유현(儒賢) 110위를 종사했다. 그중 동국의 18현 중 정몽주 이하 15현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유림들의 상소에 의해 동.서무에 종향되었다.

서울의 백악산 아래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우에 종묘와 사직이 있으며, 성균관에 문묘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사직과 왕조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종묘는 그리고 유교의례인 문묘가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교의 국가의례라고 할 수 있다.

2. 가례(家禮)

국가의례는 천(天)과 종묘사직(宗廟社稷)등이 대상이 되지만, 가정에서의 유교적 의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통과의례로 관례는 성인 의례이고 혼례는 결혼의례이며 상례는 죽음의 의례이고 제례는 추도의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있는 의례이며, 그 의례 속에는 인간과 그 사회의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어 지면 의례도 변모하는 것이며, 지금도 계속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유교의례는 국가의례이건 가례이건 유교만의 가치관이 담긴 것은 아니다. 유교의례는 《주자가례》 등에 의해 정착화 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선중기 때까지도 미흡했고, 그전에 형성되었던 민간신앙과 불교적 의례와 혼용되어왔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점차 예학(禮學)이 발달하면서 제례와 상례 등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규범으로 공동체 통합의 의례로 강조되었다. 중종때 까지 정착화 되지 못한 가례(家禮)들이 점차 사대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서민들은 그런 의례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례는 순수한 유교의례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유교는 종교적인 초월신이나 저승의 개념이 불분명하

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기존의 의례를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바탕의 가치관은 유교에 바탕을 두어 온 것이므로 유교의례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예송 등으로 점철된 의례논쟁으로 인해 유교의례를 낡은 가치체계나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함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소홀했다. 유교적 의례와 절차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그 의의가 간과되고 무시되어 왔다.

III. 유교의례에서 본 생명관

1. 인간중심의 생명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해하는 것은 전쟁일 것이다. 유교는 원칙적으로 전쟁을 인명에 대한 막대한 재앙으로 경고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우주적 원리에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군대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할 수 없이 이것을 막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천지인(天地人)의 도는 생육(生育)을 위주로 한다. 전쟁은 만물의 생육을 방지하고 이것을 죽인다. 이것은 천지인의 대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늘의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 하늘의 도리를 변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땅의 도리를 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람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⁶⁾

원시유교의 핵심은 인(仁)이고 이 인은 인간성이자 인간애이며, 인간에게만 국한된 가치가 아니라 동물을 비롯한 여타의 생태환경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생명존중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인(仁)의 실현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 인류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가족의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본다.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가족공동체 속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가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물론 여기에서 仁이 가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바탕으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로 나아가는 지

6) 《예기》, 「月令」, 「稱兵必天殃 兵戎不起 不可從我始 母變天之道 母絕地之理 母亂人之紀 故母儀 先於父訓 慈教 嚴於義方」

구윤리적 차원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최고의 이상이 평천하 곧 인류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정의 출발이 되는 결혼의 의례를 중시했다. 여기에서 결혼적령기가 될 때 관례와 혼례의 의례가 있다. 관례와 혼례는 성인으로서 가정을 가지게 하려는 통과례인데, 결혼의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출산이다. 출산은 생명의 탄생을 말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한 인명의 탄생은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생명의 영속을 의미했다.

이혼을 고려 않은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아내는 결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가문을 잇는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낙태의 원인 가운데 태아가 딸일 경우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교의 입장은 출산을 제한하기 위한 낙태는 살인과 같은 것으로 그 원인을 아들선호사상, 혹은 유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⁷⁾

혼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출산에 두고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의 생명이 단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면면히 이어온 공동체의 생명체로서 의의를 가진다. 자신의 조상은 바로 자신의 생명의 원천으로 귀중한 의례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었고 자신은 후손으로 번성해가는 생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조상은 생명의 뿌리로서 소중하게 받들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제례에 있어서 조상의 존중은 바로 자기 생명에 대한 경외이며 존중인 것이다.

유교에 있어서 인간이 생명을 가치 있고 긍정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는 증거는, 그 생명을 자신에게 부여해 준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⁸⁾ 바로 그런 감사의 의례가 제사인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조상에 대한

7) 김영진의 〈유전공학과 도덕적 문제〉, 《생명의료윤리》(구영모 편), 서울:동녘, 1999. 166-167쪽 참조할 것.

그러나 유교의 입장은 태아를 인명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미 태아도 교육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태교로부터 인간교육은 시작된다.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다. 하늘 곧 아버지는 정기를 베풀고 땅 곧 어머니는 몸을 낳는데, 자녀의 골기 곧 뼈대는 아버지를 닮고, 성기(性氣) 곧 성품은 어머니를 닮는다. 옛날에 현명한 여자는 임신하였을 때 태교하는 방도를 반드시 삼갔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용의는 아버지의 훈계보다 먼저이고,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은 아버지의 올바른 교훈보다 엄격하였다. (《女四書》, 「女範」, ‘父天母地 天施地生 骨氣像父 性氣像母 上古賢明之女 有娠 胎教之方 必慎’) 이처럼 남자의 정기와 여자의 몸으로 인명이 탄생하고, 그 탄생은 아직은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도 해당되는 것이다.

8) 배중호, 「유교의 死生觀」, 《공자사상과 현대》思社研, 1990. 여기서 성선설이 성립

제례는 유교의례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2. 음식과 희생으로서의 동물

유교의 인은 모든 생명존재에 미치지 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선은 제사의례의 희생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자공이 새 달을 고하는 데 희생으로 바치는 양을 없애려 하자, 공자 말씀하시기를, 자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는가. 나는 그 예를 아낀다.⁹⁾

유교의례에서는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제례에서 올리는 고기는 하늘을 상징하는 날개달린 고기, 땅에서 사는 고기, 그리고 물에서 사는 고기를 올려야 비로소 좋은 공양물이 된다. 석전제나 사직제에서는 혈제라고 하여 익히지 않은 날고기를 공양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교의 생명관은 우선 인간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동식물은 그 자체로 보다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마곳간이 불탔거늘 공자께서 조정에서 물러 나오셔서 물으시기를, ‘사람이 상했느냐’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¹⁰⁾

이런 인용문은 공자의 생명존중의 관심이 동물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속으로는 말의 안위에 대해 걱정을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말의 생명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고 있다. 마곳간에 불이 났으면 응당 말의 생명도 물어야 할터인데 말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것은 동물을 결코 인간과 동렬에 두지 않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의례에서 보자면 유교의 생명은 주로 우선은 인명에 해당하는 것이지, 동물에게까지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유교의례에서는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제례에서 올리는 고기는 하늘을 상징하는 날개달린 고기(羽), 땅에서 사는 고기(毛), 그리고 물에서 사는 고기(鱗)를 올려야 비로제사의 격식에 맞는다. 제수의 음식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음식은 제주가 바라보는 첫째 줄에는 과일이, 다음 줄에는 좌포우혜(左脯右醢)로 왼쪽에 말린 고기인 포가 있어야 하고, 오른쪽에는 육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줄에는 탕인데, 역시 깃 달린 고기, 털 달린 고기, 비늘달린 고기의 탕이

되며, 복을 비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함.

9) 《논어》, 「팔일」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10) 《논어》, 「향당」 ‘개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있어야 한다. 넷째 줄의 음식은 적과 전으로 역시 세 가지 우모린(羽毛鱗)이 재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로 쓰이는 동물은 깃 달린 동물로는 닭, 털 달린 동물로는 소나 돼지, 비늘달린 생선이 쓰인다. 가례에서는 모두 익힌 고기를 사용하지만, 국가의례라고 볼 수 있는 석전제(釋奠祭)에서는 제사 하루 전에 제사에 쓰일 살아있는 동물을 살펴본다. 그 동물이 세 번을 돌고 아홉 번을 돌아본 뒤 희생으로 사용한다.

석전의 제수로 쓰이는 동물로 생고기로 쓰이는 것은 시성(豕腥)으로 돼지이며, 양성(羊腥)으로 염소로 익히지 않으며 이것은 도마(俎)에 담는다. 대나무 제기(簋)에 담는 것은 녹포(鹿脯)로 사슴고기를 말린 것이지만, 지금은 소고기 말린 것을 사용한다. 나무 제기(豆)에 올리는 익힌 고기는 돼지(담해)와 사슴(녹해, 지금은 쇠고기로 만듦), 토끼(토해) 그리고 조기(어해)로 만든 국물이다.¹¹⁾

이처럼 석전제나 사직제에서는 혈제라고 하여 익히지 않은 날고기를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교의 생명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동물의 경우는 인간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동물은 인간의 존엄과 감히 함께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도덕적 존재가 아닌 열등한 생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오직 욕심을 따르다면 인도(人道)가 폐하여 금수(禽獸)에 들어갈 것이요, 도(道)로써 욕심을 제재하면 천명(天命)을 따를 수 있다.¹²⁾

유교의례에서는 이처럼 인간생명의 존엄함에 중점을 두고 인간과 동물의 생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둔다.

3. 생명에 대한 경외 : 동물을 배려하는 경우

유교에서는 금수(禽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인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수(禽獸)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짐승에 대해서도 측은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도덕적 인간의 자세이다. 비록 동물들이 일상생활의 음식으로 먹고, 또한 의례에서 희생과 공양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살생이나 남획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봄 제사의 희생에 임신한 동물이나 암컷을 쓰지 않는 것은 이런 배려이다.

시(時)는 새끼를 배는 때를 이르니, 맹춘(孟春)에 희생은 암컷을 쓰지 말라.¹³⁾

11) 《광주향교지》 건, 광주: 광주향교, 89-110쪽. 진설도와 홀기를 참조할 것.

12) 《詩經集傳》 권3. 〈鄘風相風〉, ‘則人道廢 而入於禽獸矣 以道制則能順命’

13) 《맹자집주》, 〈양혜왕장구상〉, ‘謂孕字之時 如孟春犧牲母容牝之類也’

맹자는 도덕정치를 설명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양심으로 바로 그러한 仁에 바탕을 둔 정치를 요청하면서 희생에 끌려가는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 칭찬한다.

왕께서 이를 보시고 ‘소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으시자, 대답하기를 ‘장차 종(鍾)의 틈을 바르는 데 쓰려고 해서입니다.’ 하였습니다. 왕께서 ‘놓아주어라. 내가 그 두려워 벌벌 떨며 죄없이 사지(死地)로 나아감을 차마 볼 수 없다.’ 하시니,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혼종(鬻鍾)을 폐지하오리까?’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양(羊)으로 바꾸어 쓰라.’ 하셨습니다.¹⁴⁾

희생으로 쓰이는 동물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의 떳떳한 인정이다. 소를 양으로 바꾼다고 해서 희생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측은지심 혹은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¹⁵⁾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도덕정치의 근본이라고 설명하는 맹자의 가르침에서는 동물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동물에 대한 배려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물고기를 먹고 새들을 먹고 동물을 음식으로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획을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의 마음에서 볼 때 꺼림직한 것으로 여겼다.

옛날에 그물을 반드시 네 치의 눈을 써서 고기가 한 자에 차지 못하면 팔 수 없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을 백성과 함께 이용하되 금지함이 있어서 초목(草木)이 잎이 떨어진 뒤에야 자귀와 도끼를 가지고 산림(山林)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모두 정치하는 초기에 법제가 아직 미비하였으므로 우선 천지자연의 이(利)를 위하여 절제(撙節)하고 애양(愛養)한다.¹⁶⁾

동물들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동물을 부리고 혹은 음식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군자는 금수(禽獸)에 대해서 산 것을 보고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죽으면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 때

14) 위의 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鬻鍾. 王曰 舍之 吾不忍其輶棘若無罪而就死地 對曰然則廢鬻鍾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 有諸’

15) 《맹자집주》, 〈공손추상〉,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16) 《맹자집주》, 〈梁惠王章句〉, ‘古者 網罟 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 市不得食 山林川澤 與民共之 而有厲禁 草木零落然後 斧斤入焉 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문에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¹⁷⁾ “군자는 도살장(屠殺場)이나 요리장(料理場)을 멀리하여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을 몸소 죽이지 않는다.¹⁸⁾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음식으로 먹기는 하지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어진 인간에게는 괴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피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다.

무사(無事)하면서도 사냥하지 않는 것을 불경(不敬)하다고 말하고 사냥하는데 예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늘이 낸 생물을 학대한다고 한다. 사냥할 때 천자는 사면(四面)을 둘러싸지 않으며, 제후는 짐승의 때를 덮치지 않는다.¹⁹⁾

곤충이 아직도 칩거(蟄居)하지 않을 때는 풀을 태워서 사냥하지 않고 새끼를 뱀 것을 죽이지 않으며 갓난 것을 죽이지 않고 소굴을 뒤집어 엎어 전멸시키지 않는다.²⁰⁾

오곡(五穀)의 제철이 아닌 것과 과실의 익지 않은 것, 벌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에 잡은 금수어벌(禽獸魚鼈)을 시장에서 팔아선 안된다.²¹⁾

이런 내용들은 비록 동물이나 여타의 생명체들을 인간이 일상생활이나 의례에서 조차도 활용하지만, 이러한 활용이 다른 생명에 대한 살생을 찬미하는 것은 아니다. 풀과 나무는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풀과 나무를 먹지 않는다면 동물은 생존할 수 없다. 사람은 풀과 동물을 먹이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풀과 동물이 음식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은 내가 부양해야 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이웃보다도 먼저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공자께서 낚시질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지마는 그물로는 잡지 않으셨으며 줄 단 화살로 날으는 새를 잡으셨지마는 잠자고 있는 새를 쏘지는 않으셨다.²²⁾

인간과 동물의 차별성이 유교를 인간중심으로 자연파괴적 논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유교는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차별이 있지만 유교의 이상은 차별을 넘어서 인류에 미치는 것이다. 만약에 차별에만 머물고 만다면 그것은 인(仁)이 아닌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별은 있지만 그것이 곧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17) 위의 책,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是以 君子遠庖廚也’

18) 《小學》, 〈敬身〉 ‘君子 遠庖廚 凡有血氣之類 弗身踐也’

19) 《예기》, 〈王制〉, ‘無事而不田 曰不敬 田不以禮 曰暴天物 天子不合圍 諸侯不掩群’

20) 위의 책, ‘昆蟲未蟄 不以火田 不() 不卵 不殺胎 不殀夭 不覆巢’

21) 위의 책, ‘五穀不時 果實未熟 不粥於市 木不中伐 不粥於市 禽獸魚鼈 不中殺 不粥於市’

22) 《논어》, 〈술이〉 ‘子釣而不網 弋(익)不射宿’

이다. 나의 가족과 이웃이 차별은 있지만 그것이 곧 이웃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음식으로 삼는 것을 인간중심의 논리로 삼을 수 없다. 동물을 음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생명에 대하여 신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인간의 생명과는 같지 않더라도 모든 생명은 인(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몸의 존중 : 상례를 중심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생명관은 상례의 경우에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으로서 먼저 육신의 귀중함을 잘 보여준다.

증자가 병이 들어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이불을 들추어 내 손발을 보아라. 시경에 몹시 두려워하고 삼감이 깊은 못에 임한 것 같으며 얇은 얼음을 디딘 것 같다 하니 이제야 내가 불효를 면했음을 알았도다.²³⁾

죽음의 순간에 자기가 유지해온 몸이 온전히 유지된 것에 대해 안심하는 증자의 마음이야말로 유교의 생명관을 잘 들어내고 있다.

육신은 부모의 몸에서 생긴 것으로 마치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감히 조심해야 될 대상인 것이다. 자기 몸을 조심하지 못하여 훼손하는 것은 자기의 부모를 상해하는 것이 되고, 자기의 부모를 상해하면 이것은 자기의 근본을 상해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²⁴⁾ 비록 시신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과 마찬가지로 죄를 물은 경우 관속의 시신을 꺼내 다시 베는 ‘부관참시(剖棺斬屍)’의 형벌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²⁵⁾

생명과 죽음에 대한 차이를 유교의례 속에서 찾아보자면, 우선은 죽었다고 해서 인간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물리적으로는 사라지지만 그 혼백은 물리적 죽음과 달리 살아남은 자와 교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례로 표현되는 것이다.

제사란 돌아가신 조상과 자손과의 교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자가 육신을 회복할 수 없지만 그 혼백(魂魄)이 돌아와 제사에 흠향한다는 것이 전통

23) 위의 책, 〈泰伯〉, ‘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24) 《小學》, 〈敬身〉, ‘孔子曰 君子 無不敬也 敬身 爲大 身也者 親之枝也 敢不敬與. 不能敬其身 是傷其親 傷其親 是傷其本 傷其本 枝從而亡’

25) 금장태, 위의 책, 무오사화때의 김종직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47쪽. 참조할 것.

적인 생각이다. 여기서 혼백(魂魄)이란 인간의 정신인데, 사람이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魄)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다.

혼기(魂氣)가 하늘로 돌아가고, 형백(形魄)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사람이 죽으면 열기는 위로 올라가니 혼(魂)이 올라간다고 하고, 하체가 점점 차가워지니 백(魄)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다.²⁶⁾

사람의 죽음은 이 기(氣)가 흩어져 돌아 가버리지만 그러나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감응(感應)의 이치가 있다. 조상들이 오랜 세월이 되어 떨어져서 기(氣)의 유무(有無)를 알 수 없지만, 제사를 받드는 것은 그들의 氣를 이은 자손들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기(氣)의 흐름이 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조상과 후손사이의 감통(感通)의 이치가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러도 혼백이 남으며, 특히 조상으로부터 받은 신체와 뼈에 백(魄)이 남기 때문에 그 백이 곧 뼈가 남은 산소에 대한 성묘는 중요한 의례인 것이다. 죽은 자의 유체도 소중한데, 살아있는 사람의 몸의 소중함이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IV. 유교의례에서 본 생명윤리

1. 임신중절, 자살, 안락사의 해석

오늘날 생명윤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가 인간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없었던 논쟁으로 배아도 태아의 범주로 간주했으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태아는 인간인가? 이에 대한 유교의 응답은 ‘그렇다. 태아도 인간이다’라는 점이다.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유교의 입장은 우선 태교(胎敎)의 사상일 것이다. 유교에서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되는 것이다. 근래에 임신중절의 원인이 유교의 남아선호현상 때문이라고 하여 가부장적 남성위주의 문화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유교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이다. 유교의 근본정신은 인(仁)이며, 인(仁)이란 인간과 인간의 자애로운 유대관계다.

만약 임신중절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상도(常道)가 아닌 권도(權道)로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하기 위해 형수의 손을 어쩔 수 없이 잡는’것을 허용하는 비상시의

26) 《朱子語類》,卷三, 〈鬼神〉

행위에 한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사회의 임신중절 등의 생명경시는 윤리적 문제로 반성을 요한다.

태아는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높은 낙태율은 1960년대 이후 싹튼 경제중심논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일 수 없으며, 유교본래의 인간존중사상에 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교적 세계관은 천명론이라는 것이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도 인간의 의지가 아닌 천명(天命)의 영역인 것으로 여기에 억지로 개입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못한 태도로 부정적이다. 안락사와 자살의 경우도 운명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²⁷⁾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개울가에 나와 앉아서 아이를 씻기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그만 실수를 하여 아이를 물에 떨어뜨려서 죽었다.... 효부는 말하기를“사람은 타고난 수명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은 곧 오늘에서 다한 것이오니 어머니가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²⁸⁾

아이의 죽음에 대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대목에서 유교적 생명관을 잘 읽을 수 있다. 인간의 태어남과 결혼, 그리고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은 모든 유교의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유교의 입장이 숙명론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인간이 할일을 다하지만 천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또한 아니다.²⁹⁾ 유교의 윤리관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이며, ‘존천리알인욕(存天理遏人欲)’의 철학이다. 이것은 천명론이며 달관(達觀)의 철학으로 하늘의 법칙에 순응하는 자세이다. 임신중절, 안락사 혹은 자살은 이러한 천명(天命)과 천리(天理)를 거슬리는 인욕(人欲)의 행위에 속한다고 하겠다.

2. 뇌사,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

우선 뇌사란 유교적 가치관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죽은 시신도 혼백이 깃든 소중한 생명의 연장선에서 보는데, 뇌사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장기가 운동한다

27) 《논어》, 〈안연〉, ‘死生有命 富貴在天’

28) 《賢婦列傳》, ‘高松孝婦 姑抱其兒 出坐川邊 洗兒 姑失手 兒落水死.....孝婦曰“人生有命 兒之命 是盡於今日 非姑死之也”’

29) 이런 점에 대해 馮寓는 바로 운명과 인간의 사이의 조화를 유교의 중용으로 해석한다. 馮寓著, 김갑수 역 《천인관계론》, 서울: 신지서원, 1993. 138쪽 참조할 것.

면 이는 결코 죽은 존재일 수 없다. 유체는 자손들의 귀의의 대상이 되고 성묘의 대상으로 중시된다. 죽은 뼈도 존중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의 훼손이란 불효이며 받아들이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의례를 보면 뇌사란 성립되지 않는다. 인간의 마지막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존엄하며, 심지어 숨이 끊어진 유체도 존중과 귀의의 대상으로 그대로 남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장기이식은 막대한 불효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는 유교의 인(仁)의 사상이 장기이식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체와 털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어서 감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는 구절로만 장기이식의 행위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은 삶을 구하는 것으로 인(仁)을 헤치지 아니하며, 몸을 죽여서 인(仁)을 성취시킨다.’³⁰⁾

인(仁)은 바로 ‘애인(愛人)’과 ‘살신성인(殺身成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증여해서 타인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토록 해주는 것이 인(仁)을 몸으로써 실천하는 도리라고 이해하고 싶다는 주장이다.³¹⁾ 이 이론은 자살의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수용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유교 의례 속에 들어난 생명관은 몸을 자기 자신의 몸으로 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의 공유로 보고, 유체일지라도 그 신체를 신성시 한다는 점에서 뇌사나 장기이식을 수용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신체(장기)를 기증한다는 발상자체는 권리의 남용인 것이다. 하물며 이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생명복제의 문제

1997년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복제 양 돌리가 탄생한 이래로, 생명복제기술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면서, 동시에 무정자등의 이유로 자녀를 같이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첨단기술로 혹은 인류의 재난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면면한 자손의 번성을 희망하는 유교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부부사이의 생명복제기술의 적용은 유교적 가치관과 일치한

30) 《논어》, 〈위령공〉, ‘志士仁人 無求生而害仁 有殺身而成仁’

31) 金世仁, 〈의료기술의 발달과 유학의 역할〉, 《21세기 미래사회와 유학의 역할》,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다는 주장도 있다.³²⁾ 불임부부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의료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 등을 활용한 줄기세포연구, 혹은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지만 복제인간의 탄생은 그야말로 언젠가는 실현될 기술로 현실속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배아(수정후 14일 이전)의 지위에 관한 문제 등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항이다.³³⁾

우선은 이러한 생명공학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마리를 풀자면 수정란과 배아와 태아 등이 인간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생명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풀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음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아의 인간으로의 가능성이 경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과는 분명 차별이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복제기술이 생명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논의할 때는 보다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³⁴⁾ 만약 주문생산에 의한 복제인간의 탄생을 가정해서 평가하자면 복제인간의 탄생은 하나의 재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교의례의 혼례의 정신으로 볼때,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방식으로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는 정통이 아닌 차별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교의례에서는 정통을 중시하고 존중하며, 격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는 가계나 왕실의 계승에 대해 준엄한 논쟁이 있었다. 조선후기 예송에서 보여주는 장자와 서자사이의 복제논쟁은 국가윤리와 기강확립차원에서 당파간의 치열한 정통논쟁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정통성의 차원이었던 것이다.

32) 최재목, 위의 논문, 344쪽. 심지어 정상적인 부부라도 우수한 유전자를 갖춘 2세를 ‘주문생산’ 하는 상황도 긍정할 것이라고 전망함. 김병환, 〈유가는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가〉, 283-294쪽. 참조. 인간복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함. 김병환 〈생명공학과 인간복제: 유학의 응답〉에서도 생명의 탄생을 돕는 복제기술은 긍정적으로 묘사함.

33) 문제가 되는 것은 배아복제는 난자 공급처로서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만든다는 점, 생명을 도구화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배아도 인간의 생명인가 아닌가라는 점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34) 진교훈, 〈생명조작과 인간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과학사상》, 22호, 1997. 85-86쪽. ① 수정란에서 시작되는 인간생명체 파괴와 생명경시 ② 성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상호의존성 파괴 ③ 인간개체의 유일회성과 대처불가능성의 파괴 ④ 인간 사회의 근간인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를 와해 등

전통사회에서는 적법한 혼례를 통하지 않는 결합에 의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신분적 불이익을 주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은 건전한 가족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의례를 치르지 않는 인간은 언제나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받도록 구조화된 것이 유교의례이다. 혼례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남녀의 결합은 신분적으로 승인되지 못했다. 하물며 남녀의 자연적인 결합이 아닌 인위적인 생명복제는 모든 인(仁)의 바탕이 되는 가족관계를 저해함으로써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여야 비로소 성인(成人)으로 인정을 받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인이 되는 통과의를 치루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유교적 남녀유별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유롭게 성에 대해 논의하며,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회가 된 사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다.

전통적 유교의 혼례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가장 중요한 인류의 근거로 삼으며, 그러한 가정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혼례를 중시했다. 적법한 결혼절차가 없거나 남녀의 결합에 의하지 않은 경우, 동물의 경우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생명복제로 이어질 경우는 가족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동물과 인간의 생명이 구별이 없는 곧, 인간존엄의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생명복제는 난치병 치료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간복제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유교 의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정신이라고 하겠다.

V. 결론

생명윤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지구윤리의 하나이며, 오늘날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첨예한 논의의 과정 중에 있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유교는 선진시대 이래로 동아시아인의 가치관을 형성해 왔으며, 비록 오늘날 그 외형적 형식은 많은 변화가 있을지언정 동아시아인의 사유방식의 기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유교의 입장은 지구윤리의 기조인 황금률(Golden rule)에 충실한 인(仁)을 근본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정된 가치관이 아닌 무엇이 항상 마땅한가를 성찰하는 중용 또는 시중(時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교는 예치주의를 정치이념과 사회질서의 근본으로 하였으며 특히 가족을 교화의 단위로 여겨왔다. 각각의 가족이 안정될 때 사회는 안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경제 집단인 가족은 조상숭배를 행하는 종교집단이기도 하였다. 조상숭배를 통하여 가족은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적 요구와 가족을 교화의 단위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가례(家禮)를 중시하게 하였다. 관혼상제를 포함하는 가례는 유교의 실천논리였다.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오늘날 제기된 지구적 환경위기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생명윤리의 논쟁에 대한 유교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 오랜 세월동안 생활 속에서 의례로 내재되어 있던 유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임신중절이나 안락사 혹은 자살은 천명을 거스리는 행위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이다. 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교의 상례에 의하면 인간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생명과 마찬가지로 존경의 대상이 된다.

장기이식은 살신성인의 인의 실천으로 해석될 수 가능성도 있지만, 신체를 소중히 하는 차원에서는 천명에 대한 위배이며 개인의 신체를 조상과는 무관한 실존적 개인주의의 산물로 본다.

생명복제의 경우는 수정란, 배아, 태아를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배아와 인간을 동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복제로 이어질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으로 또한 혼인과 가정의 존엄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고, 인간과 동물의 차별을 없애버림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인간의 질병을 극복하는 놀라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장수와 생명에 대해 유익할지라도, 유교의 사상이나 의례에 나타난 바로는 낙태, 안락사, 뇌사, 자살, 혹은 생명복제의 쟁점들은 천리에 부응하기 보다는 인육의 차원에 쏠림으로써 개별적 생명을 연장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보편적 생명의 신성함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치병 치료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 《禮記》, 《詩經集傳》, 《中庸》, 《論語》, 《孟子》
 《朱子語類》, 《小學》
 《광주향교지》, 광주: 광주향교. 2004.
 《공자사상과 현대》, 한국공자학회, 서울: 思社研, 1990.
- 강손근, 〈생명윤리학의 성립과 그 역사적 배경〉, 《대동철학》, 15집, 2001.
 박신환, 〈‘주역’의 생생불식 사상〉,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서울: 동녘, 1999.
 금장대,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 예문서원, 2000.
 김교빈, 〈양명학과 생명사상〉, 《동양철학》, 13집, 한국동양철학회. 2000.
 김병환, 〈유가는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가〉, 《오늘의 동양사상》 9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3.
 김병환, 〈생명공학과 인간복제: 유학의 응답〉, 《중국학보》 47집, 한국중국학회. 2003.
 김세인, 〈의료기술의 발달과 유학의 역할〉, 《21세기 미래사회와 유학의 역할》,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8.
 김세정, 〈환경윤리에 대한 동양철학적 접근: 유가철학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29집, 범한철학회, 2003.
 김세정, 〈생명공학 시대의 유교와 생명윤리〉, 《동서철학연구》 30호, 한국동서철학회, 2003.
-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생명윤리방법론》, 2004 생명윤리 워크숍. 2004.
 문시영, 《생명복제에서 생명윤리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이완재 외, 〈조선초기의 유교적 국가의례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사학》, 10집. 1998.
 정병석, 〈우주 대가정의 생태론적 사유와 천인합일의 생명윤리〉, 《유교사상연구》 10집, 한국유교학회. 1998.
 진교훈, 〈생명조작과 인간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과학사상》, 22호, 1997.
 최일범, 〈생명공학시대에서 본 남명사상〉, 《생명공학시대의 철학적 성찰》, 14회 한국철학회, 2001.
 최재목, 〈인간복제에 대한 유교적 입장〉,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서울: 궁리. 2001. 학자대회보. 2001.
 한예원, 〈양명학의 만물일체관에서 본 ‘생명윤리’〉, 《양명학》 6호, 한국양명학회. 2001.
 황필호, 〈인간복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종교사연구》 9집, 한국종교사학회, 2001.
 村山智順, 《釋奠 祈雨 安宅》, 昭和 13年, 朝鮮總督府
 馮寅著, 金갑수 역 《천인관계론》, 서울: 신지서원, 1993
- Wayne Alt, *Ritual and The Social Contruction of Sacred Artifacts: An Analysis of Analects 6.25*, Philosophy East & West, Vol.55, No.3, July 2005. University of

Hwail Press.

<http://sgti.kehc.org/theology/10.htm>

<http://astro.temple.edu/~dialogue/Center>

<http://kvc.minbuza.nl/uk/archive/report>

원고접수: 2005년 4월 28일 1차심사: 6월 2일 게재승인일: 6월 17일

연구자 소개: 이희재

① 전공: 한국철학전공 / 소속: 광주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한국종교의례와 응용윤리, 박세당 사상

③ 주요논저: 〈화이관에서 본 한류〉, 〈유교의례에서 본 환경윤리〉, 〈박세안의 비판 철학〉

④ E-mail: irhee00@dreamwiz.com

Confucianism Formalities and Bioethics

Lee Heejae
(Gwangju University)

《Abstract》

Confucianism has been adopting Formality-centering philosophy as political ideology and social standards. Especially family has been considered as an unit for enlightenment. It used to be told that stabilized Family results in stabilized society. And Family would be the religious unit as well as basic social unit or economic unit. Ancestor Worship helped family members united and mentally stabilized. These social trends consider the Customary Formalities something important. The Customary Formalities of the Family, including the ceremonies of coming-of-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or memorial, used to be the principal of the Confucianism. Under this Confucian way of thought, Confucianism shows strict point of view in Bioethics.

Actions against the Destiny; abortion, euthanasia, and suicide, are against the Dignity of human being. Brain Death is also against the Dignity of human being. According to the Confucian way of thought, human being should be respected whether it is alive or dead.

Transplantation can mean sacrifice to preserve human being's integrity. However Confucianism tells that it is against the Destiny and just product of the existential individualism, that the human body is not inherited by the ancestor.

Cloning, not lawfully permitted, is also against the Destiny and may violate the Dignity of human being and the Home. Furthermore it can be carried out for the Human being and the animal and negatively meant to neglect its Dignity.

Advanced science sure brings benefits for the Human being to cure chronic diseases. It is just helpful to each individual and to lengthen span of life while its products; abortion, euthanasia, brain death, and cloning, are completely against the Destiny and sure violate the Dignity the Human being under the Confucianism and its Formalities.